



큐리오시스-제약바이오協, 자율실험실 기술 공유
랩 오토메이션 전문기업 큐리오시스가 국내 신약개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한다. 큐리오시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설 시신약연구원과 ‘AI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5년간 자율실험실(SDL) 기술을 공유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 등을 추진한다.

/큐리오시스



안성호 에이스경암 이사장, 성남시에 쌀 기부

15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 겸 에이스침대 대표(왼쪽)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백미(10kg) 7500포, 금액으로는 2억1000만원 어치를 성남시청에 기탁했다.

/에이스침대



동아오츠카,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닝 교보재 공개

동아오츠카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각장애 러너와 함께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인 가이드 러닝 교보재’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보재는 시각장애 러너와 가이드 러너가 함께 러닝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 방법부터 이동 및 주행 시 유의사항까지 실제 러닝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 매뉴얼 형태로 담았다. 국내외 러너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했다.

/동아오츠카



에스트라, ‘韓 피부건강 엑스포’ 공식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정통 K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학술교류를 통해 피부과학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트라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한피부과학회가 후원하며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확산한다.

/아모레퍼시픽



NH농협금융, 농촌 초등학교에 기부 물품 전달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도사초등학교를 찾아 농촌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금융과 NH투자증권이 준비한 수제쿠키 500세트와 문구 500세트는 초록우산을 통해 순천 관내 농촌지역 초등학교 7개교 500여명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NH농협금융

현대차그룹, 중증 장애아동 500명에 특수 유모차 지원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산책’ 행사
장애아동 신체적 특성 등 반영
기아 PV5 활용 이동 편의성 강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과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동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이동의 가치’ 중심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15일 중증 장애아동 500명에게 맞춤형 특수 유모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산책’ 행사를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일반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와 일상 외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현대차 국내사업지원실 김경조 상무, 현대차 국내지원사업부장 김은희 상무,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윤효준 본부장, 밀알복지재단 황대벽 총괄본부장, 와이업 도홍구 대표이사, 밀알복지재단 조성걸 실장이 지난 14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 초청 환자 가정 대상 ‘산책’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밀알복지재단,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과 협력해 특수 유모차 500대의 제작·생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 유모차는 중증 장애아동의 신체적 특성과 의료적 필요가 반영됐다. 일반 유모차보다 약 50% 넓어진 시트와 최대 30kg 하중을 견디는 강화 프레임

을 적용했으며, 최대 175도 리클라이닝 기능과 링거 거치 모듈, 50L 수납공간 등을 갖췄다. 차량 작제와 보관 편의를 고려한 원터치 폴딩 기능도 적용했다.

기아 역시 목적기반차량(PBV)을 활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PBV 전용

두 번째 ‘청암히어로즈’에 허원배 회장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스코청암재단, 수상자 선정

40여년간 농업·복지·교육·환경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 온 허원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사진)이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히어로즈’에 선정됐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허원배 회장을 청암히어로즈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하고 1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암히어로즈는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허 회장은 1982년 충남 아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무농약 자연농법을 실천하는 청년 생산자 모임을 조직하며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이후 푸른들영농조합법인으로 성장해 400여명의 생산자가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85년부터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위원과 이사, 소장, 이사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힘썼다. 대학 교수와 대학



이사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참여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시민모임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복지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최근 10여년간은 환경과 지역 공동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펼치고 시민사회와 대학, 청년, 초·중·고교생이 참여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CJ 계열사 6곳, 6600억 대금 조기지급

전년比 지급 규모 2배 늘어

CJ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총 66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CJ대한통운, CJENM 커머스부문,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 6곳이 참여한다. 혜택을 받는 중소 납품업체는 7400

여 곳에 이른다. 전체 지급 규모는 6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오는 18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각 사별로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지급일보다 2주에서 한달가량 선 지급된다.

CJ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매년 추석 납품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에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진충모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지연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황의태

부음 ▲ 박보훈(향년 92세)씨 별세, 박혜준·박혜신씨 모친상, 김정석(쿠

팡 부사장)씨 장모상, 임종환(삼성전자·김수민(한국투자증권)씨 외조모상 = 1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안성 선영. ▲한필레씨 별세, 성석우씨(파이낸셜뉴스 정치부 기자) 외조모상 =15일 영천전문장례식장 금강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장인화 선임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출신
현장서 경험 쌓은 경제계 인사

장인화부산상공회의소명예회장(사진)이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제89차 동반성장위원회회를 열고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추천을 거쳐 장인화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3일부터 향후 2년이다. 신임 장인화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회장·대한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및

지역경제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경제계 인사다.

또한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등을 맡는 등 지역사회와 체육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달곤 현 동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8기에는 부산 등 지역경제 현장에서 쌓아온 장인화 신임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협력의 외연을 더욱 넓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T, 콜센터품질지수 3관왕 ‘패거’

이동통신, 인터넷·IPTV 이어
AX컨택센터혁신상 수상까지

KT가올해콜센터품질지수에서3관왕을 차지했다.KT는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콜센터품질지수(KS-CQI)에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IPTV 2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부문에서 12년 연속, 초고속인터넷·IPTV 부문은 13년 연속 이룬 성과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센터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AX컨택센터혁신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조민선 기자 msjo@

현대그린푸드, 카자흐에 식품공장 건설

알라타우시 총괄청과 ‘맞손’

현대그린푸드가 중앙아시아 신흥시장인 카자흐스탄에 K푸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과 유럽 등 인근 시장까지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15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 총괄청(Alatau City Authority)과 식품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알라타우신도시 내 K푸드 생산 시설 구축을 비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 박홍진 사장(왼쪽)이 알라타우시 총괄청 알리셰르 압디카디로프 대표와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현대그린푸드

롯해 식품 생산·물류 인프라와 생산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